

엘레판티니 파피루스에 나타난 유대인 삶의 양태들¹⁾

소형근*

들어가는 말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이집트 남쪽 엘레판티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이어갔다. 그들은 야후(Yhw)²⁾를 위한 성전도 건축했고, 구약의 안식일과 절기들도 지켰던 자들이었다. 엘레판티니 유대인의 모습은 포로기와 포로 이후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삶의 모습이 불확실하던 차에, 포로 이후 유대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물론 엘레판티니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엘레판티니에서 발견된 자료들을 통해 어느 정도는 디아스포라의 종교와 문화와 일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본 논문은 학계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엘레판티니 파피루스와 오스트라카 연구기³⁾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하기에⁴⁾ 엘레판티니

* 서울신학대학교 조교수, 구약학

1) 이 논문은 2016년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2) 엘레판티니 유대인들이 숭배하던 신이 왜 ‘야후’(Yhw, 혹은 ‘야호’)로 불렸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3) B. A. Ayad, “From the Archive of Ananiah Son of Azariah: A Jew from Elephantine,” *JNES* 56 (1997), 37-50; A. Joisten-Pruschke, *Das religiöse Leben der Juden von Elephantine in der Achämenidenzeit*, Göttinger Orientforschungen 3: Iranica Neue Folge 2 (Wiesbaden: Harrassowitz, 2008); I. Kortsiefer, “Die Religionspolitik der Achämeniden und die Juden von Elephantine,” *Religion und*

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은 엘레판티니 파피루스와 오스트라카를 분석하여 유대인들의 종교성과 일상의 주제들을 찾아낼 것이며, 그 주제들을 구약성서와 비교하여 이들의 신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들의 일상이 어떤 식으로 토착화 되었는지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 지형학적 위치

오늘날 이집트 남부 지역에 아스완(Aswan)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아스완을 흐르는 나일강가에 엘레판티니(Elephantine)라는 섬이 있다. 엘레판티니라는 지명은 이 섬이 ‘코끼리’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고대 이집트의 남쪽 경계로 알려져 있던 곳이다.⁵⁾ 이 엘레판티니는 후기 아랍어로는 ‘엡’(Yeb)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⁶⁾ 엘레판티니는 지형학적으로 나일강 동안(東岸)의 제1폭포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고대에 대상들의 야영지이자, 숙박 장소였던 곳이다. 그런 면에서 엘레판티니는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만나는 장소여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가 혼합적인 요소를 갖추기에 충분한 위치였다. 오늘날 엘레판티니 섬에는 누비아인 마을 두 곳과 고대 이집트 시대의 건축물과 고고학 박물관을 볼 수 있다. 에스겔서의 저지는 엘레판티니

Religionskontakte im Zeitalter der Achämeniden, ed. R. G. Kratz, VWGTh 22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2), 150-178; J. Kuchertz, “Schuhe aus der persischen Militärkolonie von Elephantine, Oberägypten, 6-5. Jhdt. v. Chr.,” *MDOG* 138 (2006), 109-156; B. Porten & A. Yardeni, *Textbook of Aramaic Documents from Ancient Egypt, vol. 4: Ostraca and Assorted Inscriptions* (Jerusalem: Hebrew University Press, 1999).

- 4) 국내에서는 엘레판티니 유대인들에 대한 연구가 1982년 원용국의 글만이 유일하다. 참고. 원용국, “엘레판틴 파피루스 사본 연구,” 『신학지남』 49 (1982), 133-154.
 5) B. Lang, “Elephantine,” *RGG*⁴ 2 (Tübingen: Mohr Siebeck, 1999), 1194.
 6) 엘레판티니는 고대 이집트어로 ‘이예베우’(Iebew)였기에 아랍어로 이와 유사한 발음인 ‘엡’(Yeb)이 된 것이다.

가 있는 아스완을 ‘수에네’(Syene)라는 이름으로 기록한다(겔 29:10).

2. 유대인의 정체성

엘레판티니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엘레판티니 지역에서 발견된 기원전 5세기의 것으로 보이는 52개 파피루스와 300개 이상의 오스트라카(ostraca) 때문이다.⁷⁾ 아람어로 기록된 이 파피루스와 오스트라카에는 기록자들이 자신들을 유대인(*yēhūdāyē*)⁸⁾으로 불렀으며, 엘레판티니 주둔지의 사령관(*rav hela*)⁹⁾ 역시 유대인이었고, 이들은 과거 이스라엘인들의 종교적 성향과 매우 유사한 삶을 살고 있었다.⁸⁾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집트 남쪽 엘레판티니까지 내려오게 된 것일까? 기원전 525년 페르시아의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점령하는데, 당시 이 지역에는 이미 유대인 군사 주둔지가 있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시대 이전에 이 주둔지에 정착했던 것이 분명하다.⁹⁾ 유대인들이 엘레판티니에 내려오게 된 가능성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다. 첫째는 기원전 8세기 말경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람어를 사용하고, 특정한 신들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엘레판티니로 이주했다는 주장이다.¹⁰⁾ 둘째는 기원전 7세기 말경 요시아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에티오피아인들과 전쟁 중에 있던 파라오 프삼메티크 1세(Psammetich I)를 돕기 위해 엘레판티니에 이주했다는 주장이다.¹¹⁾ 셋째는 기원전 6세기 남왕국 유다 멸망과 함께

7) 엘레판티니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와 오스트라카에는 ‘편지들’, ‘법률모음집’, ‘목록들’, ‘폐모들’, 문학적인 본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 R. Albertz, *Die Exilszeit: 6. Jahrhundert v. Chr.*, BE 7 (Stuttgart: Kohlhammer, 2001), 68, 85-86.

8) J. Blenkinsopp, *Judaism, The First Phase: The Place of Ezra and Nehemiah in the Origins of Judaism* (Grand Rapids: Eerdmans, 2009), 120.

9) 레스터 L. 그레비, 『고대 이스라엘 역사: BC 2000년경 ~ BC 539년』, 류광현, 김성천 역 (서울: CLC, 2012), 270.

10) B. Lang, “Elephantine-Urkunden,” *RGG*⁴ 2 (Tübingen: Mohr Siebeck, 1999), 1195.

11) G. W. Ahlström,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Minneapolis: Fortress, 1993),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집트 남쪽 엘레판티나까지 내려가 정착했다는 주장이다.¹²⁾ 그러나 엘레판티나에 유대인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착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증할만한 분명한 근거자료는 없다. 다만 이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은 과거 남왕국 유다 사람들보다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 가깝다.¹³⁾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점이 우리의 결정을 어렵게 한다. 이들의 정체는 아이러니하지만, 이들이 페르시아 시대 이전에 엘레판티나에 정착해서 자신들만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엘레판티나에 있던 유대인들(Judeans)을 ‘유대인들’(Jews)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로젠베르크(S. G. Rosenberg)는 엘레판티나에서 유대인 성전(Jewish temple)의 유적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¹⁴⁾ 만약 로젠베르크의 주장처럼 기원전 5세기, 4세기에도 엘레판티나의 유대인들을 통해 유대인의 성전 활동과 포로 이후 유대교적 흔적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포로 이후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유대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원전 410년 엘레판티나 야후(Yhw) 성전이 파괴된 후, 엘레판티나 식민지(colony)가 갑작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역사에 어떤 흔적도 남아 있지 않으며, 파괴된 야후 성전의 흔적 또한 찾을 수 없다.¹⁵⁾ 또한 기원전 5세기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아닌 이집트 엘레판티나에서 혼합종교적 야후 신앙을 숭배하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라는 호칭을 과연 붙일 수 있을지 묻는다면,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를 때는 ‘형식을 갖추고(formative), 규범적이며(normative), 랍비적인(rabbinic) 유대교인’

751-760.

12) 원용국, “엘레판틴 파피러스 사본 연구,” 136.

13) J. Blenkinsopp, *Judaism, The First Phase: The Place of Ezra and Nehemiah in the Origins of Judaism*, 23.

14) S. G. Rosenberg, “The Jewish Temple at Elephantine,” *Near Eastern Archaeology* 67 (2004), 4-13.

15) B. Porten, *The Elephantine Papyri in English I: Three millennia of Cross-Cultural Continuity and Change*, 2nd revised edi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1), 18.

을 전제하는 것이다.¹⁶⁾ 그러나 엘레판티니 유대인들은 신명기 사가의 야웨 신앙(Yahwism)이나, 포로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유대교적 성향과 정체성을 지니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유대인’(Jew’ 혹은 ‘Jewish’)이라는 용어는 헬레니즘 시대에 형성된 용어이며, 페르시아 시대에는 야웨 신앙에서 유대교로 넘어가는 전환기라고 볼 수 있다.¹⁷⁾ 따라서 엘레판티니 주민들이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고는 있으나, 이들을 바빌론 포로 이후 유대교의 한 분파를 형성했던 ‘유대인’(Jew)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런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엘레판티니의 ‘유대인’과 포로 이후 ‘골라’(golah) 그룹의 구성원이었던 ‘유대인’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자 한다.

3. 엘레판티니 유대인의 종교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레판티니 유대인 공동체가 언제 야후 성전을 건축했는지 알 수 없으나, 야후를 위한 성전이 오래 전부터 존재했었고(TAD 1999; 4, 7-9),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유대인들은 성전예배를 드렸으며, 성전이 파괴된 후에도 이들은 성전재건을 위해 유다 지역 총독과 예루살렘 대제사장에게 탄원서를 보냈던 자들이었다. 또한 이들은 과거 남왕국 유다에서 지키던 종교력을 엘레판티니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지키고 있었다. 물론 오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가 엘레판티니 파피루스나 오스트라카에 소개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자신들만의 종교성을 가지고 야후를 숭배했던 자들이었다.

-
- 16) B. Becking, “Yehudite Identity in Elephantine,” in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Achaemenid Period: Negotiating Identity in an International Context* (Winona Lake: Eisenbrauns, 2011), 404.
 17) Ibid. 참고. E. H. Edelman, *The Triumph of Elohim: From Yahwisms to Judaisms*, CBETH 13 (Kampen: Kok Pharos, 1995); S. J. D. Cohen, *The Beginnings of Jewishness: Boundaries, Varieties, Uncertaint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25-106.

3.1. 야후 성전

엘레판티니 파피루스에 의하면 캄비세스가 기원전 525년 이집트의 남쪽 경계였던 엘레판티니 지역까지 점령했을 때 이 지역에 이미 야후 성전이 세워져 있었음을 알려준다(TAD A4.7 Cowley 30). 이후 당시 지역 총독이었던 비드랑가(Vidranga)가 자신의 아들이자 수에네 요새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나파나(Nafaina)를 보내 이집트인들과 함께 엘레판티니의 야후 성전을 기원전 410년에 완전히 파괴한다.¹⁸⁾ 그들은 성전문과 돌기둥, 목재로 된 지붕들과 모든 내부 시설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불태워 버렸다. 유대인 공동체와 이집트 크눔(Khnum) 신전의 제사장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때 엘레판티니에 있던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하늘의 주(Lord of Heaven)이신 야후께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유다 지역 총독 바고히(Bagothi, 혹은 Bagavahya)와 예루살렘 대제사장 예호하난(Jehohanan)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에게 알리고,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의 발신인은 엘레판티니 지역의 예다냐(Jedaniah)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고, 수신인은 유다 지역 총독 바고히이며, 이 편지는 기원전 407년경으로 추정한다(TAD A4.7 Cowley 30). 엘레판티니 지역에 파괴되었던 야후 성전이 다시 세워졌는지에 대한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바고히는 답신(TAD A4.9 Cowley 32)을 통해 성전 재건을 허락하되 향을 피우는 것과 식물제사는 드릴 수 있지만, 동물제사는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전건축을 허락한다(TAD A4.10 Cowley 33).¹⁹⁾ 바고히는 기원전 5세기 말 유다 지역의 총독이었으며, 아마도 느헤미야의 후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원전 5세기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지역에 야후 성전(Yhw temple)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

18) B. Porten, *The Elephantine Papyri in English I: Three millennia of Cross-Cultural Continuity and Change*, 142-143.

19) B. Becking, "Yehudite Identity in Elephantine," 412.

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다는 점은 바빌론 니푸르(Nippur) 지역에 살았던 포로민들과 비교할만하다.

3.2. 신앙관

페르시아 시대 이집트는 국제적인 국가였다. 단적으로 엘레판티니 요새가 그것을 알려주는데, 엘레판티니에는 유대인들 외에도 아람인들, 바빌론인들, 박트리아인들(Batrians), 카스피해인들, 호라즘인들(Khwarezmians), 메데인들, 페르시아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엘레판티니 지역에 자신들만을 위한 야후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이집트인들은 크눔(Khnum) 신전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람인들은 수에네 지역에 바닛(Banit), 베텔(Bethel), 나부(Nabu), 하늘의 여신(Queen of Heaven)을 숭배하는 신전을 가지고 있었다.²⁰⁾ 그러나 엘레판티니 유대인들은 야후 외에도 ‘아낏 벤엘’(Anath-Bethel), ‘에셈 벤엘’(Eshem-Bethel), 아낏-야후(Anat-Yhw) 등과 같은 여신을 함께 숭배했었다.²¹⁾ 즉, 이들은 신앙의 대상으로 야후만 숭배했던 것이 아니라, 야후와 함께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혼합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정착하면서 토착민의 신앙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과거 이스라엘 지역에서 신앙하던 혼합종교의 습성을 이집트에서도 이어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²⁾ 한 예로써 유대인들은 성전 예물을 드릴 때 가장 많은 양을 야후에게 바쳤고, 그보다 적은 양을 아낏-벤엘에게 바쳤으며, 그보다 더 적은 양을 에셈-벤엘에게 바쳤다(AP 22 column 7).²³⁾ 이러한 모습은 엘레판티니 유대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20) B. Porten, *The Elephantine Papyri in English I: Three millennia of Cross-Cultural Continuity and Change*, 18.

21) R. Albertz, *Die Exilszeit: 6. Jahrhundert v. Chr.*, 86.

22) 엘레판티니 야후 성전 바로 옆에 이집트인의 크눔(Khnum) 신전이 있었다(TAD 3.4 Kraeling 3; TAD 3.8 Kraeling 4). 이것이 후에는 갈등의 요소로 작용한다.

23) J. Blenkinsopp, *Judaism, The First Phase: The Place of Ezra and Nehemiah in*

쉽게 동화된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명기나 포로 이후 혼합종교를 철저히 금지했던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유대교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특히, 신명기의 일부 본문에는 유일신앙적 관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신 4:35, 39 등).

3.3. 유월절과 무교절

엘레판티나 파피루스의 예다냐(Jedaniah) 문서에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인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이 편지의 발신인은 하나냐(Hananiah)이고, 수신인은 예다냐²⁴⁾와 유대인 부대이며, 기원전 419-8년 것으로 추정한다.²⁵⁾ 이 문서가 많이 훼손되어서 정확한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코우리(A. Cowley)와 포르텐(B. Porten)에 의해 복원된 자료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제 너희는 니산월 14일을 지키되, 14일 밤에 유월절을 지키고,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키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정결하고, 주의하라. 니산월 15일과 21일은 일하지 말라. 발효된 어떤 음료도 마시지 말라. 니산월 14일 해질 때부터 21일 해질 때까지 누룩이 든 어떤 것도 먹지 말며, 그것을 너희 집 보이는 곳에 두지도 말라. 너희 집에 있는 어떤 누룩도 방안으로 가져가지 말고,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들을 봉인하라.
[...] (TAD A4.1 Cowley 21)

하나냐가 보낸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엘레판티나 유대인들이 니산월 14일 밤에 유월절(Passover, 참고 레 23:5; 민 9:5 등)을 기념했다는

the Origins of Judaism, 120.

24) ‘예다냐’는 지역 공동체의 지도자로 추정된다.

25) B. Porten, *The Elephantine Papyri in English I: Three millennia of Cross-Cultural Continuity and Change*, 126.

것과 이튿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Festival of Unleavened Bread, 레 23:6; 대하 30:21 등)을 지키되, 구약성서의 무교절 규정에 따라 첫 날과 마지막 날에 노동을 금지하고(레 23:7-8), 무교병을 먹으며(출 12:18), 어떤 유교물도 먹지 말아야 함을 가르쳤다는 것이다(출 12:20). 이는 구약성서 오경에 나오는 무교절 규정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레판티니 파피루스나 오스트라카에는 구약성서 본문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엘레판티니 유대인들은 신명기 이전의 야웨 종교 혹은 민중의 토속 종교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²⁶⁾ 그렇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의 절기들에 대해서는 매우 익숙해 있었고, 그 절기들을 이집트 달력에 근거하여 기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⁷⁾

3.4. 안식일

‘안식일’(Sabbath)이라는 용어가 엘레판티니 파피루스에는 나오지 않고, 오스트라카에서만 나온다(ostraca nos. 44cc5, 49cc, 8, 152cc2, 186cv1). 엄밀하게 말하면, 엘레판티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충실하게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다. 다만 이들이 오스트라카에 ‘안식일’에 대해 기록한 자료만 존재할 뿐이다. 르메(A. Lemaire)는 고대 아시리아나, 고대 바빌론 지역에서 행해지던 것처럼 음력 15일인, 보름달이 뜨는 날에 안식일을 지켰다고 주장한다.²⁸⁾ 그러나 ‘안식일’(Sabbath) 제도의 기원은 모호하지만, ‘안식일’은 한 주간을 칠 일로 정하고 지켰던 고대 이스라엘의 오래된 종교제도였으며,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것임이 분명하다.²⁹⁾ 엘레판티니 유대

26) B. Lang, “Elephantine-Urkunden,” 1196.

27) 참고. L. L. Grabbe, *Judaism from Cyrus to Hadrian(vol.1): The Persian and Greek Period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54-55.

28) A. Lemaire, “Le sabbat à l’époque royale israélite,” *Revue Biblique* 80 (1973), 161-185.

29) 롤랑 드보, 『구약시대의 생활풍속』, 이양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인들이 이방 지역에 야후 성전을 세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야웨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그런 유대인들이 엘레판티니에서 고대로부터 내려온 안식일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다음 두 개의 오스트라카에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다.

예다냐(Yedanjah)에게 문안한다. 지금 나는 비축창고에 있는데, “그에게 빵과 물을 주라”는 연락을 받았다. 지금 아후탐(Ahutab)이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나 **안식일**이다. 이제 만약 그들이 나단(Nathan)을 거기서 붙잡지 않는다면, 그가 나에게 가도록 허락하고, 나는 가서 가루로 갈도록 하겠다. [...] (TAD D7,10)

보라. 내가 내일 채소들을 보낼 것이다. 내일 **안식일**에 채소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보트에서 만나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야후의 살아계심을 걸고 나는 너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메술레메트(Meshullemeth) 혹은 쉐마이야(Shemaiah)를 신뢰하지 마라. 이제 나에게 답례로 보리를 보내라. 만일 지금 그렇지 않으면, 야후의 살아계심을 걸고 너는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TAD D7.16:1-9)

첫 번째 오스트라카(TAD D7,10)는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축창고에 있던 빵과 물을 아후탐이 가져가려 하는데, 그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 오스트라카(TAD D7.16:1-9)는 이스라(Islah)라는 사람이 채소를 보내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스트라카의 내용을 토대로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가 엘레판티니에서는 일반화된 일이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해일 것이다. 혹자는 이 날이 특별히 긴급한 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래라고 말한다.³⁰⁾ 그러나 만일 엘레판티니 유대인들이

368. 엘레판티니 파피루스 연구의 전문가인 듀퐁-쑤머(A. Dupont-Sommer) 또한 엘레판티니 지역에서 안식일은 구약성서처럼 일곱째 날에 거행되었다고 주장한다. 참고. A. Dupont-Sommer, “L’ostracon araméen du sabbat (Collection Clermont-Ganneau n° 152),” *Semitica* 2 (1949), 29-39.

안식일과 절기로부터 자유로웠다고 한다면, 그들이 세운 야후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야후 성전은 유대 공동체를 결속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안식일과 절기는 더 엄격하게 지켜야만 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에 물건을 거래하는 일은 종교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그것이 엘레판티니 유대인들의 관행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안식일에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오스트라카 기록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엘레판티니의 주민들 중에 일부는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4. 엘레판티니 유대인의 일상

4.1. 혼인

엘레판티니나 수에네 지역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에는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이 나온다. 여기에는 엘레판티니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집트인들, 아람인들, 그리스인들, 아람인들의 결혼 문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이 지역의 결혼은 성문화된 법률 제정에 근거하기 보다는 개인의 신분이나, 재산 정도에 따른 관행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음의 파피루스는 결혼에 대한 문서이다.³¹⁾

[...] 왕조 설립자인 테호(Djeho)의 아들 에스홀(Eshor)이 수에네의 아람인 마세야(Mahseiah)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집에 와서 당신에게 요청하기를, 나에게 당신의 딸 밍타히야(Miptahiah)를 아내로 주십시오. 오늘부터 영원히 그녀는 나의 아내, 나는 그의 남편이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30) B. Becking, "Yehudite Identity in Elephantine," 407.

31) 엘레판티니 파피루스에는 유대인과 관련된 세 개의 결혼 계약서가 나온다(TAD B2.6; TAD B3.3; TAD B3.8).

딸 밍타히야를 위해 당신에게 지참금(*mohar*)을 드렸습니다. 은 5세겔(*shekel*)³²⁾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 훗날 에스홀이 아들이나, 딸이 없이 죽었을 때 에스홀 집과 물건들과 재산, 그리고 그가 지상에 갖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권리는 밍타히야에게 있습니다. 훗날 밍타히야가 아들이나, 딸이 없이 죽었을 때 에스홀 물건들과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에스홀입니다. 훗날 밍타히야가 법정에서 서서 “나는 나의 남편 에스홀을 증오합니다”라고 말하면, 증오의 은(*silver*)은 그녀의 책임입니다. 그녀는 균형 저울을 가져와서 에스홀에게 은 7½세겔을 달아서 놓고, 가져온 모든 것을 놓고, 소송 절차와 상관없이 그녀는 원하는 곳으로 떠나가도 좋습니다. 훗날 에스홀이 법정에서 서서 “나는 나의 아내 밍타히야를 증오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녀에게 주었던 지참금과 그녀가 소유한 모든 것은 잃게 되고, 소송 절차와 상관없이 그녀는 원하는 곳으로 떠나가도 좋습니다. 밍타히야를 에스홀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누구든지 그녀에게 은 20카르쉬(*karsh*)를 주고, [이혼] 확인서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밍타히야 외에 다른 아내를 갖거나, 밍타히야가 낳은 아이들 외에 다른 아이들을 갖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밍타히야와 그의 아이들 외에 다른 아이들과 아내를 갖겠다고 말하면, 나는 밍타히야에게 은 20카르쉬를 주어야 합니다. [...] (TAD B2.6 Cowley 15)

이 문서는 엘레판티니 지역에서 발견한 파피루스로 기원전 449년에 데호의 아들 에스홀이 예다나의 아들 마세야에게 보낸 문서로 되어 있지만, 기록지는 아나니아의 아들 나단이다. 이 문서에는 엘레판티니 지역의 결혼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첫째는 결혼 지참금과 관련된 것이다. 왕조의 설립자³³⁾인 에스홀이 자신의 부인이 될 유다 사람 밍타히야에게 청혼하러 ‘지참금’을 가지고 간다. 구약성서에는 이 ‘지참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자주 나온다. 세겔이 야곱의 딸 디나를 얻기 위해 ‘큰 혼수’와 ‘예물’을 원하는 대로 요구하면 주겠다고 말한다(창 34:12). 또한 언약법전에도 한 남성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피어

32) 10세겔이 1 카르쉬(*karsh*)이다.

33) 그가 정확히 어떤 왕조를 설립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동침했을 때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야 하며(출 22:16), 신명기 법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은 50세겔이라는 금액을 지정해 주고 있다(신 22:29). 또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사위가 될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한다(삼상 18:25). 클레인(R. W. Klein)은 블레셋 남성들의 포피 100개가 결혼을 위한 ‘지참금’이라고 본다.³⁴⁾ 이처럼 엘레판티니 유대인들에게도 구약성서 언약 법전과 신명기 법전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고대 이스라엘의 초기 관습에서 수행되어 오던 구매결혼이자, 지참금(*mohar*)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혼인제도의 원칙은 일부일처제였다. 에스홀은 자신의 아내와 그녀를 통해 낳은 아이들을 제외하고 다른 아내나 아이들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약속한다. 물론 이혼은 가능했다. 그러나 이혼은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한 이상 결혼관계가 파기되기 전에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은 그들의 결혼관습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구약성서 또한 족장들이나, 왕정시대의 왕들을 제외하고는 ‘일부일처제’가 원칙이었다. 머피(R. E. Murphy)는 잠언 5:16(“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개역개정』)에 나오는 ‘도량물’을 ‘혼외 정사하는 남자’로 규정하면서 이 본문을 결혼한 남자가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으려 하면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³⁵⁾ 따라서 잠언 5:15-20은 일부일처제에 대한 전제 아래 주어진 교훈적인 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엘레판티니 유대인들은 구약성서 잠언처럼 일부일처제가 원칙이었다.

셋째는 이혼에 대한 것이다. 결혼할 때 남자는 지참금을 지불해야하고, 결혼이 일부일처제가 원칙이지만, 배우자가 싫어졌을 때 이혼도 가능한 구조였다. 위의 아람어 문서에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상대가 싫어졌을 때, ‘증오의 은’(silver of hatred)을 지불하게 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싫어하게

34) 랄프 W. 클레인, 『사무엘상』, WBC 10, 김경열 역 (서울: 솔로몬, 2004), 330-331.

35) 롤랜드 E. 머피, 『잠언』, WBC 22, 박문재 역 (서울: 솔로몬, 2001), 80.

될 경우에 그녀에게 주었던 지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그녀가 가져왔던 모든 것을 다시 가져갈 수 있었으며, 그녀에게 은 20카르쉬(karsh)와 이혼증서를 주어야만 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이 싫어져서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남편에게 은 7½세겔을 주고, 그녀가 가져온 모든 것을 그대로 놓고 그녀가 원하는 곳으로 떠나면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경우 모두 어떤 법률적 소송이나 절차 없이 이혼이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구약성서에도 ‘이혼’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직 신명기 법전에서만 간략하게 서술해 주고 있다. 남자가 결혼한 아내에게서 “수치 되는 일”(신 24:1)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치 되는 일”이란 아내의 ‘간음’이라기보다는 아내의 성적으로 수치가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간음’은 사형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레 20:10). 크리스텐센(D. L. Christensen)은 신명기 24:1의 “수치 되는 일”을 “여성의 성기 노출”로 이해하고 있다.³⁶⁾ 즉,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해당 여성의 남편에게 커다란 수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해 보면, 구약성서는 이혼할 때 엘레판티니 지역처럼 ‘증오의 은’으로 배상하는 행위는 없고, 오로지 여성에게 이혼증서만을 주라고 규정하지만, 엘레판티니의 이혼의 경우는³⁷⁾ 좀 더 구체적인데 이것은 아마도 수에네와 엘레판티니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의 문화에서 영향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수에네와 엘레판티니의 이집트인, 그리스인, 아랍인의 문헌에는 이혼할 경우에 ‘증오의 은’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TAD B2.6; TAD B3.3; TAD B3.8; TAD B3.8; P. Eleph. 1.6-7[D2] 등). 그러나 이혼에 대한 규정이 수에네와 엘레판티니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

36) 두에인 L. 크리스텐센, 『신명기 21:10-34:12』, WBC 6, 정일오 역 (서울: 솔로몬, 2007), 220-221.

37) 엘레판티니 자료에는 구약성서의 ‘수치 되는 일’과 같은 ‘증오’의 원인이 될 만한 구체적인 언급이 빠져 있다.

아니라, 각 사람의 지위와 재산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4.2. 수용성과 배타성

바빌론에 갔던 포로민들은 바빌론 제국의 감시 하에 있었지만 소수 민족 연합체인 하트루(*hatru*)를 조직하여 자유민의 신분으로 살았으며, 사유재산을 갖게 된 사람들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거래를 하는 등 바빌론 지역에 동화되어 제국의 일원으로 살아갔다.³⁸⁾ 바빌론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바빌론에 살던 유대인들 중에는 바빌론 사람들이나, 혹은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 성행했고, 통혼을 통해 바빌론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유대인들의 잡혼에 대한 근거를 보통은 성명학(*onomastics*) 연구를 통해 찾게 된다. 예를 들면, 유대식 이름을 가진 아이의 부모가 바빌론식 이름을 갖거나, 반대로 유대식 이름을 가진 부모가 바빌론식 이름의 아이를 두게 되는 경우이다.³⁹⁾ 이러한 모습이 이방 지역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교육지책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일반적으로 한 민족의 정체성(*identity*)을 논할 때는 다른 민족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비교분석하며 해석하게 된다. 엘레판티니에 있던 유대인들 또한 다양한 민족들과의 조우를 통해 자신들만의 민족적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민족들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민족의 고유성을 상실해 가기도 했다. 엘레판티니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아람인들이나, 토착민 이집트인들과 함께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고,⁴⁰⁾ 자신들만의 고유한

38) M. W. Stolper, *Entrepreneurs and Empire: The Murašû Firm, and Persian Rule in Babylonia* (Istanbul: Nederlands Historisch-Archaeologisch Instituut, 1985), 70-103.

39) E. J. Bickerman, "The Babylonian Captivity," *CHJ* 1 (1984), 356; M. D. Coogan, *West Semitic Personal Names in the Murašû Documents*, HSM 7 (Missoula: Scholars, 1976), 120-121.

40) B. Becking, "Yehudite Identity in Elephantine," 412.

정체성을 유지한 채 고립된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 아니었다.⁴¹⁾ 이것은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레판티니 유대인들의 계약 증인목록들을 보면 유대인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주었다.⁴²⁾ 바빌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는 달리, 엘레판티니 유대인들은 작명(作名)과 관련해서 이방문화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예외적이었다. 유대인 야르후(Yarhu)는 자신의 형제 학개(Haggay)에게 벨(Bel)과 나부(Nabu)와 사마쉬(Shamash)와 네르갈(Nergal)의 이름으로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TAD D7.30).⁴³⁾ 벨,⁴⁴⁾ 나부,⁴⁵⁾ 사마쉬,⁴⁶⁾ 네르갈⁴⁷⁾은 모두 이방 신들이었다. 야웨의 이름이 들어간 히브리식 이름을 소유한 예다나와 마우지야, 우리아와 군대에 보낸 편지에는 ‘모든 신들’(gods all)이 너희들을 보호하길 바란다는 기원을 담고 있다(TAD A4.2 Cowley 37).⁴⁸⁾ 그러나 ‘모든 신들’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엘레판티니에 만신전과 같은 장소가 존재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니어(H. Niehr)는 이러한 표현이 당시 엘레판티니에서 너무나도 일반적인 것이었다고 말한다.⁴⁹⁾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엘레판티니 유대인

41) 엘레판티니에서 발견된 오스트라카에는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른 민족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42) B. Porten, “Persian Names in Aramaic Documents from Ancient Egypt” in S. Shaked and A. Netzer, eds., *Irano-Judaica V. Studies Relating to Jewish Contacts with Persian Culture Throughout the Ages* (Jerusalem: Ben-Zvi Institute, 2003), 165-186.

43) 참고. H. L. Ginsberg, “Aramaic Letters,” in: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ed. J. B. Pritchar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5), 491.

44) ‘벨’(Bel)은 아카드어 벨루(belu)에서 나왔고, 일반적으로 바빌론의 신 ‘마르둑’(Marduk)을 말한다.

45) ‘나부’(Nabu)는 바빌론의 신으로 마르둑의 아들이다.

46) ‘사마쉬’(Shamash)는 태양신을 의미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태양신 숭배가 널리 성행했다.

47) ‘네르갈’(Nergal)은 구약성서에서 딱 한번 나오는데(왕하 17:30), 바빌론의 성읍 굿(Cuth)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이었다.

48) B. Becking, “Yehudite Identity in Elephantine,” 412.

들이 다른 종교와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다. 엘레판티니에는 유대인 공동체와 이집트 크눔(Khnum) 제사장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왔다. 이집트 크눔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지역 총독 비드란가를 이용해 엘레판티니의 야후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다. 이처럼 수에네 지역과 엘레판티니 지역에는 다양한 신전들이 존재했지만, 상대방의 신들을 서로 인정해 주거나 상대방의 종교를 배척하지 않고 포용적인 자세가 주류였다. 크눔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야후 성전을 무너뜨리는 배타적인 행위는 아주 예외적이었지만 이는 종교 갈등의 일면이었을 뿐이다.

4.3. 소송

엘레판티니에서 발견된 파피루스들 중에 52개가 아람어로 기록된 문서이다. 그 중에 30개 문서가 법률관련 문서들이다. 그 중에는 의무이행과 관련된 네 개의 문서들이 나오고, 아내 지위와 관련된 세 개의 문서, 약혼과 관련된 한 개의 문서, 그리고 소송과 관련된 두 개의 문서가 나온다. 다음은 법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 내용이다.

아닥사스다 왕 4년 파오피(Phaophi)⁵⁰⁾ 달 18일에 엘레판티니 요새에서. 나부쿠두리(Nabukudurri) 지대의 요새인 엘레판티니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소유자 아람인 야쇼비아(Jashobiah)의 아들 말키야(Malchiah)가 마르야(Marya) 지대의 아르바스타(Arvastah)의 아들 아르타프라다(Artafrada)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엔프(Np')⁵¹⁾에 고소했다. 즉, “너는 내 집에 무력으로

49) H. Niehr, *Der höchste Gott: Alttestamentlicher JHWH-Glaube im Kontext syrisch-kananäischer Religion des 1. Jahrtausends v. Chr.*, BZAW 190 (Berlin: de Gruyter, 1990), 48.

50) ‘파오피’(Phaophi)는 콕어로 ‘두 번째 달’을 말하고, 오늘날 양력으로 10월 11일부터 11월 9일 사이에 있는 달이다.

51) ‘엔프’(Np')라는 용어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 중에 하나이다. ‘엔프’(Np')가 정확히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소송과 관련된 용어로

난입해서 내 아내를 힘으로 폭행하고, 물건들을 강탈하여 내 집에서 가지고 나와 그것들을 너의 소유로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조사를 받았고, 신들이 나를 소송의 자리로 불러냈다. 나 말키야는 공식 지지자들 중에서 헤렘 베크엘(Herembethel) 신에게 너를 데려가 말할 것이다. “나는 무력으로 당신의 집에 난입하지 않았으며, 당신의 아내를 폭행하지도 않았고, 당신 집의 물건들을 취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내가 이들 중에 너를 부르지 않았다면 [...] (TAD B7.2 Cowley 7)

이 본문은 기원전 401년 엘레판티니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하며, 야쇼비아의 아들 말키야가 아르바스타의 아들 아르타프라다에게 쓴 글이다. 말키야는 유다 군인이었고, 아르타프라다는 페르시아 군인이었으며, 아르타프라다가 말키야를 고소한 사건이었다. 고소의 내용은 말키야가 아르타프라다의 집에 난입하여 부인을 폭행하고, 집안 물건들을 강탈하여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말키야는 법정(*Np'*)에서 반론을 제기한 내용이 위의 본문이다. 이 파피루스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 그리고 이들의 소송에 대한 내용과 피고의 반론만 나올 뿐, 이들을 재판했던 재판관이나, 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포르텐(B. Porten)은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시대의 재판은 일반적으로 그 지역 총독(governor)과 군대 지휘관(Troop Commander)의 임무였다고 본다. 그래서 위의 소송에는 총독이나, 군대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 재판을 담당했다고 주장한다.⁵²⁾ 포르텐의 이러한 주장은 구약성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군대 지휘관인 히브리어 ‘사르’(šār)가 소송의 해결사로 활동하는 모습(출 18:21-22; 사 1:23 등)이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자신의 관할 지역인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개혁을 수행하는 모습(느 13장)은 재판관으로서 역할

집작되는데, ‘엔프(*Np'*)’는 일반적으로 아람어 ‘딘’(dīn)과 함께 쓰이고, 장소의 전치사 ‘베트’(beth)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소송의 특정 장소로 추정한다. ‘엔프(*Np'*)’가 TAD B2.9 Cowley 20에도 나온다.

52) B. Porten, *The Elephantine Papyri in English I: Three millennia of Cross-Cultural Continuity and Change*, 261, 각주 11번.

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고대에는 직업적으로 재판활동만 전담하던 재판관보다, 본래의 신분과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추가적으로 재판관의 기능을 수행했던 자(Funktionsträger)가 더 많았다. 그리고 이 문서가 피고의 탄원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면 이 문서는 본래 피고가 재판관에게 제출한 탄원서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법 사건에서 소송의 대리인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자기변론이 원칙이었다.⁵³⁾ 따라서 지금 피고인 말키야는 법정의 재판관들 앞에서 탄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제한된 자료로 보편성을 말하기 어렵지만, 흥미롭게도 피고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거나, 반론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재판이 비교적 정의롭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4. 상속

구약성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다만 죽장들이 죽음 이후 자신의 열조에게 돌아갔다(창 25:8; 35:29)든지, 왕들이 조상들에게 돌아갔다(왕하 22:20; 대하 34:28)든지 라는 짙막한 보도만이 남아 있다. ‘사자의 서’(The book of the Dead)⁵⁴⁾에 기록된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큰 관심에 비하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사후 세계관이 거의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구약성서에는 죽음에 임박한 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기업)을 물려주는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고대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기업을 아들이 물려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러나 엘레판티니에서 발견된 다음의 문서는 죽음에

53) 프랑수아 트라사르, 『파라오 시대 이집트인의 일상』, 강주현 역 (서울: 북폴리오, 2005), 89.

54)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었던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자가 다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문’, ‘마법주문’, ‘신들에 대한 서약문’ 등과 같은 두루마리 문서들을 함께 매장했다. 이러한 ‘사자의 서’는 이집트 신왕조 시대 이후로 유행하던 것이다.

입박한 자가 자신의 딸에게 재산의 상당부분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내용이다.

[...] 엘레판티니 요새의 야후 신에게 종이 된 아사라(Azariah)의 아들 아나니(Anani)는 그의 딸 예호이쉬마(Jehoishma)에게 말한다. 나는 평생에 너를 생각하면서 너에게 내가 돈을 주고 샀던 나의 집의 일부를 주었다. 나는 너에게 남쪽 방과 동쪽에 있는 나의 큰 방, 그리고 안뜰의 절반과 창고 지역의 계단 절반을 양도했다. 이것은 내가 나의 딸 예호이쉬마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던 집의 규모이다. 이것은 나 아나니가 나의 딸 예호이쉬마에게 주었던 집의 규모이다. 즉, 아래에서 위로 측량자 8½규빗, 동쪽에서 서쪽으로 측량자 7규빗, 지역으로는 측량자 98규빗, 안뜰 절반, 계단 절반, 창고 절반이다. [...] (B3.10 Kraeling 9)

위의 문서는 엘레판티니에서 발견된 기원전 404년의 기록으로 유대인 아버지 아나니가 자신의 딸 예호이쉬마에게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재산 중 일부, 그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유산으로 증여하는 기록이다. 아버지 아나니는 상당한 재력가로 보인다. 최소 2층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집에는 넓은 방과 안뜰과 창고가 있었다. 여기서 기원전 5세기 엘레판티니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몇 가지를 엿 볼 수 있다. 첫째는 유산상속은 아버지의 권한이었다. 아버지 아나니에게는 예호이쉬마 외에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더 있었는데, 이 문서에는 아나니가 자신의 딸 예호이쉬마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내가 손을 사용할 수 없던 나이든 때에 내 딸이 나를 부양했다”고 알려준다. 그러나 나머지 자녀들은 아버지가 힘을 쓸 수 없었을 때 아버지를 부양하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을 부양하고, 효도하는 자식에게 유산을 넘겼다. 구약성서에는 아들에게 일반화 되어 있던 상속권이⁵⁵⁾ 엘레판티니 지역에서는 아버지의 선택으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다. 둘째는 유산상속을 위해 공증제도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예호이쉬마에게 유산을 물려준 것에 대해 후에 누군가가

55) 예외적으로 구약성서에는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민수기 27장과 36장을 참고하라.

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람은 예호이쉬마에게 벌금으로 순금 30카르쉬(karsh)를 주어야 한다고 이 문서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예호이쉬마가 그녀의 자녀나, 혹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산을 넘겨주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아버지 아나니의 이 문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유산 상속을 위한 ‘공증’(authentication) 문서와 같은 것이다. 아나니가 사전(死前)에 자신의 말을 문서화하고,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벌금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법적효력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공증은 상당히 발전된 법률체제에서 나올 수 있던 제도이며, 고대 이집트나 엘레판티니 거주민들로부터 영향 받은 제도라 할 수 있다.

나가는 말

기원전 410년에 엘레판티니에 있던 야후 성전이 무너지자 엘레판티니의 예다나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기원전 407년에 유다 지역 총독이었던 바고히에게 야후 성전 재건을 허락받는 편지를 보내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엘레판티니 지역에 신실한 야후 신앙 숭배자들이 살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엘레판티니 파피루스를 면밀히 연구해 보면, 기원전 5세기 엘레판티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외형은 유대인이었지만, 내면은 구약성서의 신명기가 강조하는 정통과 야웨 숭배자와는 상당부분 거리가 있던 자들이었음을 알게 된다. 물론 엘레판티니 유대인들은 야후 성전을 세워 야후를 섬기며, 유월절과 무교절, 안식일을 지켰지만, 유일신앙적 야웨 숭배가 아닌 종교혼합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했고, 이방인들과의 잡혼이나,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행위는 흔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구약성서에서 볼 수 없는 엘레판티니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피고의 자기변론이나, 유산상속을 위한 공증제도 등은 발전된 이방 문화를 수용하여 문화적 토착화를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엘레판티니 유대인들이 기원전 5세기 말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몹시 이쉽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성전을 건축하고, 비록 이집트 땅에 토착화 된 야후 신앙일지라도 그 신앙을 이어가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커다란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엘레판티니 유대인의 삶의 양태들을 통해 이집트 지역에서 야웨신앙의 토착화의 일면을 볼 수 있었으며, 신앙의 토착화는 본질과 변질이 공존하게 됨을 알게 해 준 좋은 예가 되었다.

<주요어>

엘레판티니, 아스완, 야웨 성전, 유대인, 엘레판티니 파피루스, 엘레판티니 오스트라카

<Key Words>

Elephantine, Aswan, Yhw Temple, Judean, Elephantine Papyrus, Elephantine Ostraca

* 접수일 2016년 7월 29일, 수정일 2016년 9월 1일, 게재 확정일 2016년 9월 12일

참고문헌

- 두에인 L. 크리스텐센, 『신명기 21:10-34:12』, WBC 6, 정일오 역, 서울: 솔로몬, 2007.
- 랄프 W. 클레인, 『사무엘상』, WBC 10, 김경열 역, 서울: 솔로몬, 2004.
- 레스터 L. 그래비, 『고대 이스라엘 역사: BC 2000년경 ~ BC 539년』, 류광현, 김성천 역, 서울: CLC, 2012.
- 롤랑 드보, 『구약시대의 생활풍속』, 이양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 롤랜드 E. 머피, 『잠언』, WBC 22, 박문재 역, 서울: 솔로몬, 2001.
- 원용국, “엘레판틴 파피루스 사본 연구,” 『신학지남』 49:2 (1982), 133-154.
- 프랑수아 트라사르, 『파라오 시대 이집트인의 일상』, 강주현 역, 서울: 북폴리오, 2005.
- Ahlström, G. W.,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Minneapolis: Fortress, 1993.
- Albertz, R., *Die Exilszeit: 6. Jahrhundert v. Chr.*, BE 7, Stuttgart: Kohlhammer, 2001.
- Ayad, B. A., “From the Archive of Ananiah Son of Azariah: A Jew from Elephantine,” *JNES* 56 (1997), 37-50.
- Becking, B., “Yehudite Identity in Elephantine,”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Achaemenid Period: Negotiating Identity in an International Context*, Winona Lake: Eisenbrauns, 2011, 403-419.
- Bickerman, E. J., “The Babylonian Captivity,” *CHJ* 1 (1984), 342-358.
- Blenkinsopp, J., *Judaism, The First Phase: The Place of Ezra and Nehemiah in the Origins of Judaism*, Grand Rapids: Eerdmans, 2009.
- Cohen, S. J. D., *The Beginnings of Jewishness: Boundaries, Varieties, Uncertaint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 Coogan, M. D., *West Semitic Personal Names in the Murašû Documents*, HSM 7, Missoula: Scholars, 1976, 120-121.
- Dupont-Sommer, A., “L’ostracon araméen du sabbat (Collection Clermont-Ganneau n° 152),” *Semitica* 2 (1949), 29-39.

- Edelman, E. H., *The Triumph of Elohim: From Yahwisms to Judaisms*, CBETH 13, Kampen: Kok Pharos, 1995.
- Ginsberg, H. L., "Aramaic Letters," in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ed. J. B. Pritchar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5.
- Grabbe, L. L., *Judaism from Cyrus to Hadrian(vol.1): The Persian and Greek Period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 Joisten-Pruschke, A., *Das religiöse Leben der Juden von Elephantine in der Achämenidenzeit*, Göttinger Orientforschungen 3, Iranica Neue Folge 2, Wiesbaden: Harrassowitz, 2008.
- Kottsieper, I., "Die Religionspolitik der Achämeniden und die Juden von Elephantine," in *Religion und Religionskontakte im Zeitalter der Achämeniden*, ed. R. G. Kratz, VWGTh 22,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2, 150-178.
- Kuchertz, J., "Schuhe aus der persischen Militärkolonie von Elephantine, Oberägypten, 6-5. Jhdt. v. Chr.," *MDOG* 138 (2006), 109-156.
- Lang, B., "Elephantine," *RGG*⁴ 2, Tübingen: Mohr Siebeck, 1999, 1194.
- Lang, B., "Elephantine-Urkunden," *RGG*⁴ 2, Tübingen: Mohr Siebeck, 1999, 1194-1197.
- Lemaire, A., "Le sabbat à l'époque royale israélite," *Revue Biblique* 80 (1973), 161-185.
- Niehr, H., *Der höchste Gott: Alttestamentlicher JHWH-Glaube im Kontext syrisch-kanaanischer Religion des 1. Jahrtausends v. Chr.*, BZAW 190, Berlin: de Gruyter, 1990.
- Porten, B., & Yardeni, A., *Textbook of Aramaic Documents from Ancient Egypt, vol. 4: Ostraca and Assorted Inscriptions*, Jerusalem: Hebrew University Press, 1999.
- Porten, B., "Persian Names in Aramaic Documents from Ancient Egypt" in S. Shaked and A. Netzer, eds., *Irano-Judaica V. Studies Relating to Jewish Contacts with Persian Culture Throughout the Ages*, Jerusalem: Ben-Zvi Institute, 2003, 165-186.

- Porten, B., *The Elephantine Papyri in English I: Three millennia of Cross-Cultural Continuity and Change*, 2nd revised edi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1.
- Rosenberg, S. G., “The Jewish Temple at Elephantine,” *Near Eastern Archaeology* 67 (2004), 4-13.
- Stolper, M. W., *Entrepreneurs and Empire: The Murašû Firm, and Persian Rule in Babylonia*, Istanbul: Nederlands Historisch-Archaeologisch Instituut, 1985.

<초록>

엘레판티니 파피루스에 나타난 유대인 삶의 양태들

소형근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이 논문의 목적은 기원전 5세기 이집트 엘레판티니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종교성과 일상을 살피는 것이다. 또한 구약성서와 비교했을 때 그들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토착화를 이루게 되었는지를 찾는 것이다. 엘레판티니 유대인들이 정확히 언제부터 거주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기원전 525년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 이미 엘레판티니 지역에 지역 수비대로 활동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야후 성전을 짓고 야후 신앙을 갖고 살았지만, 야후 성전이 기원전 410년에 크눔(Khnum) 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에 의해 무너지자, 기원전 407년에 성전 재건을 위한 서신을 유다 지역 총독 바고히에게 보낸다. 이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레판티니 유대인들에 대한 정보였다. 그러나 엘레판티니 파피루스와 오스트라카를 통해 이들은 유월절과 무교절,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인들이었지만, 유일신앙적 야웨 숭배가 아닌, 종교혼합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했고, 이방인들과 잡혼이나, 이방신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행위는 그들의 일상이었다. 그러나 구약성서에서 볼 수 없는 법정에서 피고의 자기변론이나, 유산상속을 위한 공증제도 등은 발전된 고대 문화를 수용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엘레판티니 유대인들이 기원전 5세기 말 이후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몹시 아쉽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성전(temple)을 건축하고, 비록 이집트 땅에 토착화 된 야후 신앙일지라도 그 신앙을 이어가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커다란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spects of Judean Life in Elephantine Papyri

Prof. Hyeong-Geun So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not only to investigate a religious and daily life of Judeans who lived in Elephantine in the fifth century B.C. but also to trace any observable difference in their Yahwism and how it was assimilated in Elephantine, especially in comparison to the Old Testament. It is not certain since when Judeans lived in Elephantine, but by the time Cambyses came to Egypt in 525 B.C., Elephantine had been a military garrison, guarding the southern frontier of Egypt. The Temple of Yhw in Elephantine was built as the Jewish population settled, but because of the conflict with the Khnum priests, the Temple of Yhw was destroyed in 410 B.C. by the local Persian governor. Afterwards, Jedaniah and his priests in Elephantine sent a letter to Bagohi the governor in Judah in 407 B.C. in order to rebuild the destroyed Temple. Through the Elephantine papyri and ostraca, we also observe that Judeans kept the Feast of Passover and Unleavened Bread and the Sabbath in Elephantine, but their religious views were syncretic. For example, marriages with foreigners and blessing by the names of foreign gods were normal for Judeans in Elephantine. Moreover, Judeans adopted the developed ancient cultural norms and legal practices, such as the notarization on right to inheritance and the plea of self-defense by the accused, which is unattested in the Old Testament. The colony of Elephantine vanished by the end of fifth century B.C. It is noteworthy that despite its syncretistic form of Yahwism, Elephantine preserves

evidence for the religious life of diaspora Judeans who built the Temple of Yhw to keep their ancestor's faith.